

한자접두사에 대한

약간한 고찰

김 광 수

조선어는 그 발달과정에 한어와의 접촉가운데서 상당한 수의 한자어들을 받아들여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였다. 그 대부분이 조선어한자음으로 읽히게 됨에 따라 다른 차용어들과 구별되었으며 점차 조선어화하여 외래적성분이라는 감각조차 없이 어음, 어휘, 문법면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자어 한 글자가 조선어어휘구성에 들어와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어조성형태부로 되는 경우도 있다. 즉 하나의 한자가 단어, 단어조성어근, 혹은 접두사, 접미사로 된다.

례를 들면 하나의 한자 《생(生)》이 《생의 보람을 느낀다》, 《생 모르는 사이다》에서와 같이 단어로 된것, 《1965년생인 철수는 아직도 장가를 못들었다》에서와 같이 불완전명사로 된것, 《학생과 선생들은 운동장에 모였다》에서와 같이 단어조성어근요소로 된것, 《생고집을 부린다》, 《연구생으로 되었다》에서와 같이 접사로 된것들이다.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의 한자어의 특성을 밝히는것은 우리 말 어휘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우리 말의 우수성을 살리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중사전》에 수록된 한자접두사에 41개의 한자접두사에 대한 약간한 고찰을 통하여 한자접두사의 특성을 밝혀보려고 한다

1

한자접두사는 한자어휘가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차지하는 수량이 많을뿐더러(약 35%를 차지) 그가는 기능도 매우 다양한바 고유어접두사와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자접두사는 그 기원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가

한어의 접두사들이고 대부분은 한어의 실사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어접두사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조성의 재료로서 어근앞에 붙어 파생어를 만든다.

둘째,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에는 각종 첨가적의미가 부여된다. 즉 존칭, 애칭, 비칭, 가벼움 등의 감정적색채, 정도의 깊고얕음, 범위의 대소, 순서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

셋째, 운을 맞추기 위한 몇몇는 글자역할을 하여 음절수를 맞추어 《음악성》과 《운물성》을 가진다.

조선어에 들어온 이러한 한자접두사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존칭: 로(老) - 간부, - 교수, - 당원

순서와 차례. 제(第) - 1차, - 8기, - 3번

한도와 범위의 초과: 초(超) - 자연, - 현실주의, - 계급

한도와 범위의 미달. 준(准) - 기사, - 의. 부(副) - 교장, ~반장, ~식물

부정이나 또는 반대 반(反) - 제련대상, - 화학무기, - 공격; 비(非) - 공개, - 공식, - 합법적, 불(不) - 만족, - 유쾌, - 충분, 무(无) - 표정, - 감각, - 승부

인간의 마음과 감정. 호(好) - 시절, - 경기

한어의 실사가 조선어의 접두사로 될 때 한어의 본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두사를 품사별로 나누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품 사 | 접두사 | 한어의 뜻 | 한자접두사로 쓰임 |
|-------|--------------------------------------|---|---|
| 명 사 | 농(农) 명(名) 외(外) 먹(墨) 본(本) | 농업 저명하다 밖에 없다. 독 먹처럼 접다. 근원, 본래 | 동기계 명배우, 명화가 외아들, 외손자 먹구름, 먹감 본바탕 |
| 동 사 | 양(养) 조(助) 재(在) 건(乾) 재(在) | 기르다, 부양하다 방조하다. 정이 아니고 부(副) 다시 마르다 있다. 거주하다 | 양딸, 양아들 조교원 재출발 건포도, 건명태 재평양 |
| 형 용 사 | 독(独) 실(实) 범(汎) 경(轻) | 외롭다 단독 착실하다. 모두, 전부 가볍다, 정도가 얇다 | 독방, 독차지하다. 실농군, 실장정 범민족대회 경로동, 경음악 |
| 수 사 | 량(兩) | 두개, 쌍 | 량손, 량쪽 |
| 부 사 | 극(極) 미(未) 재(再) 최(最) | 아주, 매우 이루지 못하다 다시 아주, 매우 | 극소수, 극반동 미성년, 미완성 재출발 최신식 |

이것을 우리 말 접두사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보면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 맹(猛)-공격, -사격; 극(極)-소수, -반동; 희(稀)-류산, -급속, 최(最)-신식, -우등, -고봉; 강(强)-림, -행군, -주정; 재(再)-출발, -교육; 량(兩)-손, -쪽; 중(重)-환자, -로동, -공업; 대(大)-승리, -혁신

모양과 양태를 나타내는 접두사 각(角)-시계, -사탕; 먹(墨)-구름; 건(乾)-명태, -포도, -기침; 생(生)-고무, -나무, 담(淡)-록색, -청색

직업이나 업종에 붙는 접두사: 농(农)-기구, -산물, -기계, 경(轻)-공업, -음악, -로동; 실(实)-농군, -장정; 평(平)-교원, -단원, 명(名)-배우, -화가, -시인

부정을 나타낼 때 붙는 접두사: 미(未)-성년, -개척, -분화

상황을 나타내는 접두사: 가(假)-의사, -건물; 본(本)-바탕, 독(獨)-방, -차지, 재(在)-평양

범위를 나타내는 접두사: 범(汎)-민족

이것을 고유어접두사와 비교하여본다면 고유어접두사 접 -맞다, 개: -살구, 드: -넙다, 뒤: -흔들리다, 말: -곰, 물: -밀다, 솟: -치녀, 새: -파랗다, 휘 -둥그라다 등과 같이 그 접두사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것들이 많다 그러나 한자접두사는 한어의 접사와 실사들에서 기원을 둔것이 명확하다.

2

한자접두사는 그 결합면에서도 자체의 특성이 있다.

첫째, 한자접두사를 보면 외(外)가 동사 (틀어지다)와 결합되어 동사로 되고 강(强)과 같은 일부 접두사들이 <-하다>형 동사, 형용사와 결합되며 대부분은 명사와 결합되어 다른 명사로 되었다.

| 품사성격 접두사 | 명 사 | 《-하다》형 동사, 형용사 |
|--|---|--|
| 가(假) 건(乾) 강(强) 난(難) 농(农) 독(獨) 희(稀) 불(不) 재(再) 외(外) | -의사, -건물 -기침, -울음 -행로, -팀 -문제, -공사 -기계, -기구 -방, -상 -류산 -만족 -교육 -아들 | -주정하다, -호령하다 -차지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출발하다, -공격하다 -들어지다 |

둘째, 한자접두사는 대부분 한자어근과 결합되었고 일부는 한자어근과 함께 고유어어근 혹은 외래어어근과 결합되었으며 극소수는 고유어근과만 결합되었다.

| 어근성질 접두사 | 한 자 어 | 고유어 및 외래어 |
|--|--|--|
| 경(輕) 극(極) 담(淡) 량(兩) 명(名) 강(强) 양(養) 평(平) 범(汎) 호(好) 먹(墨) 최(最) 실(實) 본(本) 생(生) | -로동, -음악 -소수, -반동 -목색, -청색 -축 -배우, -화가 -행군 -자식 -교원, -단원 -민족 -경기, -시절 -신식, -고봉 -농군, -장정 -고향 | -쫓, -손, -팀 -구름 -바탕, -뜻 -나무, -고무 |

셋째, 한자접두사는 어근과 결합될 때 직접 수식하기때문에 어음변화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고유어접두사와 구별되는 점이다.

| 접사성격 |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 | 접두사 |
|-------------|--|--|
| 한 자 어 | 생+나무-생나무 실+농군-실농군 불+만족-불만족 호+시절-호시절 | 생(生) 실(實) 불(不) 호(好) |
| 고 유 어 | 무+좁-무좁 차+조-차조 따+취-따취 잔+사설-잔사설 한+길-한길 선+밥-선밥 된+밥-된밥 햇+곡식-햇곡식 | 물→무 찰→차 명→따 잘(다)+ㄴ→잔 하(다)+ㄴ→한 설(다)+ㄴ→선 되(다)+ㄴ→된 해+ㅅ→햇 |

즉 한자어접두사는 전부가 어근과 결합할 때 어음변화가 없음에 반하여 고유어접두사는 어음탈락, 어음변의, 어음첨가 등 형태들이 있다.

3

한자는 본래 뜻글자이기에 매개 음절마다 자체의 뜻과 음을 가지고있다. 한자어접두사도 조선어에 들어올 때 그 음은 조선어한자음이지만 자체의 한어의 뜻을 그대로 가진다. 《각(角)》은 《모가 나다》, 《강(强)》은 《세다》, 《경(轻)》은 《가볍다》, 《난(難)》은 《어렵다》, 《희(稀)》는 《드물다, 멀절다》, 《생(生)》은 《살다, 생소하다》, 《중(重)》은 《무겁다》, 《친(亲)》은 《가깝다》, 《범(汎)》은 《모든》, 《호(好)》는 《좋다》 등에서처럼 한자접두사는 그 의미로 볼 때 대부분은 고유어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어조성의 요소로 될 때 또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석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각사탕을 모사탕이라고 할수 있으나 각시계를 모시계라 할수 없고 강팀을 선팀이라고 할수 있으나 강행군을 선팀이라고는 할수 없다. 경로동을 가벼운 로동, 독방을 홀로방, 양어머니를 기른 어머니, 희루산을 멀진 루산, 생고무를 선키무, 중병을 어려운 병, 친아버지를 가까운 아버지, 범민족을 모든 민족, 호경기를 좋은 경기라고는 더구나 할수 없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말 언어습관에 맞지 않으며 짧은 말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언어경제법칙에는 배치된다.

일부 한자접두사들은 그 뜻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단어들은 있지만 그 접두사에 해당되는 고유어단어가 없고 한자어에만 있다. 《평(平)》은 《일반》, 《반(反)》은 《반대》, 《농(农)》은 《농업》, 《맹(猛)》은 《맹렬》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이러한 접두사들은 그것보다 긴 다음절한자어를 대치하는 기능을 논다. 우리 말을 순화하고있는 이때 다음절한자어를 쓰기보다 우리 말속에 깊이 침투된 접두사를 쓰는것이 꼭 경제적이고 적합하다.

한자접두사의 다른 일부는 그에 대응되는 우리말의 어휘가 없기때문에 한자접두사가 아니면 그 단어의 기능을 잘 발휘할수 없다. 《제(第)》는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준(准)》은 정도가 좀 못미치는것에 쓰인다. 《미(未)》는 아직……지 않는다. ……하지 못하다처럼 사전식설명이 필요하다. 《제9차5개년계획, 준박사학위, 미성년보호》 등 단어결합들에서 한자접두사가 붙지 않으면 우리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한자접두사는 한어와도 구별되고 고유어접두사와도 구별되는 또 하나의 의미적특성이 있다. 그것은 일부 접두사들이 단독으로 쓰일수 있는것이다. 한자는 뜻글자이기에 매 글자마다 자체의 뜻과 음을 가지고있어 모두 단독으로 쓰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접두사로 된후 모두가 단독으로 쓰일수 있는것이 아니다. 또 우리 말 접두사에서 고유어접두사는 단독으로 쓰일수 없고 반드시 어근에 붙어야만 보충적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한자접두사는 한자어와도 다

르고 고유어접두사와도 다르게 그 일부가 단독으로 명사, 혹은 단어조성어근요소, 접사, 불완전명사로도 쓰일수 있다.

각(角): -이 나다, -이 있다
난(難): -을 이겨내다, -이 생기다
농(农): -을 본업으로 하는 가정
명(名): 학생 3-이 있다.
생(生): -의 희망을 가지다.
먹(墨): -으로 쓴 글씨였다

결 론

상술한바와 같이 조선어형태부에서의 한자접두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우리 말에서 한자접두사는 그 기원으로 볼 때 한어에서의 접두사와 한어에서의 실사들로 이루어졌다. 한자어와 함께 우리 말속에 깊이 침투된 한자어요소로 쓰이는것은 그 수가 우리 말 접두사의 35%를 차지하며 그 뜻에서 존칭, 순서와 차례, 한도와 범위의 초과 및 미달, 부정이나 상반,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 모양과 양태, 정도와 상태, 겨레붙이, 상황 등 여러가지 기능을 높고있다.

둘째, 우리 말에서 한자접두사는 결합상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명사와 결합되고 일부는 그와 함께 〈-하다〉형 동사, 형용사와도 결합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자어와 결합되며 일부가 한자어와 함께 고유어와도 결합되고 《먹구름》에서 《먹(墨)》은 고유어와만 결합되며 《강(强)》은 한자어, 고유어와 결합되면서 외래어 《팀(team)》과 결합되어 《강팀》으로 되었다.

셋째, 우리 말에서 한자접두사는 많이는 우리말에 대응되는 고유어, 한자어가 있지만 그들은 한자접두사가 노는 기능을 늘수 없으며 또 한어외도 다르고 고유어접두사와도 다르게 일부 접두사는 단독으로 쓰일수 있다.

참고목록.

1. 《조중사전(朝中詞典)》(조선외국문도서출판사, 중국민족출판사, 1992)
2. 《중조사전(中朝詞典)》(조선외국문도서출판사, 중국민족출판사, 1986)
3. 《신정현대한어문법(新訂現代漢語文法)》(天津科技翻譯出版公司, 甘玉龙, 秦克霞 1993)
4. 《한어와 로어에서의 접두사 단어만들기 대비(漢語和俄語前綴構詞對比)》(余云霞 1990. 1 語言教學與研究)
5. 《조선어문법》 최윤갑 룡녕인민출판사 1980년)
6. 《조선어어휘사》 리득춘 연변대학출판사 1987년)
7. 《조선어문법》(1) 과학원출판사 1960 평양)
8. 《문화어문법규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 평양)